

언어이론적 측면과 언어사용적 측면에서 본 함축과 추론*

최명원 (이화여자대학교/서강대학교)

0. 들어가는 말

Grice (1975)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 보면서, 이러한 의사소통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대화의 논리 *konversationale Logik*가 적용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대화의 논리는 전통적인 논리학에서 발화된 문장들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적용시키고 있는 논리적 추론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에서 맥락에 의존하여 추론하게 되는 비진리조건적인 화용적 추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용론적 추론은 Grice가 제시하는 대화논리에서 추론될 수 있는 언어이론적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언어사용에 있어서는 그러나 한 사회가 갖는 규범이 언어의 사용에 제약을 주는 경우 우리는 사회의 규범이 대화원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언어사용의 측면에서 Grice가 제안하는 대화의 원리들이 준수될 수 없는 경우에 우리는 언어의 이론적 층위와 사용적 층위를 구분하여 다를 것인지, 이를 하나의 통합된 층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언어사용에서 Grice의 대화논리에 의한 화용론적 추론과 이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어사용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함축과 추론의 상충점에 대한 고려는 언어이론적 화용론과 사회언어학적 화용론을 구분하는 것과도 같다. 이처럼 이론적 측면과 사용적 측면에서 이원화된 구조로 비춰지는 함축과 추론을 토대로 Grice의 대화원리를 언어보편적 원리로서 설명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BK21 서강-이화 언어교육 연구단 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임.

1. 언어적 의사소통과 Grice의 대화 원리

Grice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대화자들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 하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상호 지킬 것으로 간주되는 협동의 원리 Kooperationsprinzip와 대화의 격률들 Konversationsmaximen을 제안하고 있다.

(1) 협동의 원리 (Kooperationsprinzip)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의 각 진행단계에서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에 요구되는 만큼 기여하라.

(2) 대화의 격률 (Konversationsmaximen)

i. 질의 격률: (Maxime der Qualität)

- 대화에서 기여하는 몫이 진실된 것이 되도록 하라.

a.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b.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ii. 양의 격률: (Maxime der Quantität)

a.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보적이 되도록 하라.

b. 필요이상으로 제보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

iii. 관계의 격률: (Maxime der Relation)

- 관련성을 지닌 발화를 하라.

iv. 양태의 격률: (Maxime der Modalität)

- 명료하게 하라

a. 모호하게 말하지 말라.

b. 중의성을 피하라.

c. 간결하게 하라.

d. 순서대로 하라.

이러한 원리와 격률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

화를 나누는 목적이 서로를 속이거나 감추는 데 있지 않고 서로의 정보나 감정을 교환하는 데 있다는 전제 하에 대화참여자들은 그러한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에 맞도록 말을 하라는 것이며, 최대한 효과적이고 타당하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화참여자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으로 의사소통의 본질에 대한 대화의 보편원리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원리나 격률들은 그러나 그의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격률들은 지켜질 수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Grice가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격률들이 모두 지켜지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논리적인 대화 (Lakoff: 1995)가 될 것이지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대화들은 Grice가 제시하고 있는 격률들 가운데 적어도 몇몇 개의 격률들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키지 않고 있다. 대화의 진행에서 이러한 격률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청자는 이러한 원칙들이 보다 깊은 층위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격률들이 준수됨으로서 또는 준수되지 않음으로서 대화함축 Konversationale Implikatur이 유발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Grice는 대화함축을 일반함축 Generalisierte Implikatur과 특정함축 Partikularisierte Implikatur으로 다시 나누고 있다. 대화함축에서 일반함축은 대화의 격률을 준수한다는 전제에서 추론이 가능한 함축을 말하는 반면, 대화의 맥락 안에서 특화된 특정함축은 대화의 격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얻게되는 함축으로 추론과정에는 특정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처럼 의사소통에서는 발화 안에 명시적 혹은 명시적이지 않은 형태로, 격률을 준수하거나 혹은 준수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발화 의도가 함축되어 있으며,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추론이 생긴다.

2. 언어이론적 측면과 언어사용적 측면에서 본 함축과 추론의 관계

이성범 (2001: 203)은 “생각하고 말하는 갈대로서 인간은 추론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빌어 언어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연언어의 특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함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Grice (1975)는 의사소통을 할 때 화자로부터 청자에게 전달된 것은 발화에서 직접 말해진 명시적인 것¹⁾과 그 발화에 함축되어 ‘implicature’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있다고 본다.²⁾ 따라서 발화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는 발화를 통해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내용 뿐 만이 아니라 대화의 맥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함축된 의미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 추론이다. 즉,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언제나 일정한 양의 추론을 수반한다는 것이다.³⁾

Grice (1975)는 함축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크게 고정함축 Konventionelle Implicatur과 대화함축 Konversationelle Implikatur으로 나누고 있으며, 대화함축은 다시 일반함축 Generalisierte konversationelle Implikatur과 특정함축 Partikularisierte konversationelle Implikatur으로 나누어진다.

I. 고정함축 (Konventionelle Implikaturen)

(3) **Sogar** Hans liebt Ma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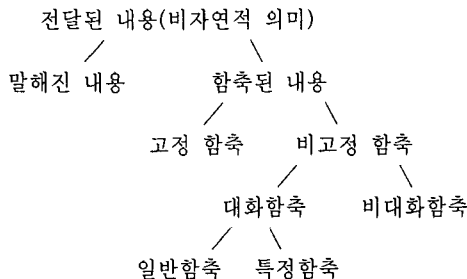
(4) Er ist ein Engländer; er ist **daher** tapfer.

II-i. 대화함축의 일반함축 (Generalisierte konversationelle Implikatur)

(5) **Einige** der eingeladenen Gäste kamen zur Party.

1) Sperber & Wilson (1986)은 이를 외축 explicature으로 분류하고 있다.

2) Grice(1975)는 함축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내용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3) 이성범(2001: 21)

(6) Wenn Peter heute abend kommt, dann gehe ich.

II-ii. 대화함축의 특정함축 (Partikularisierte konversationelle Implikat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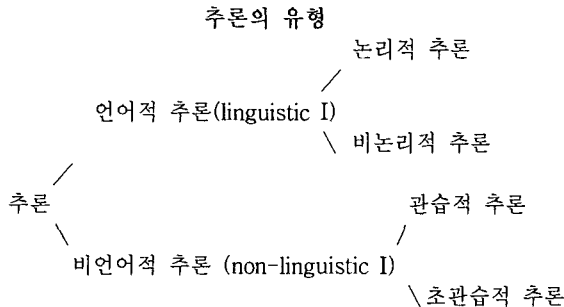
(7) A: Wo ist Peter?

B: Eben habe ich den gelben VW vor Marias Wohnung gesehen.

위의 예에서 보듯이 함축은 (7)의 예에서처럼 격률을 어길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대화 원리를 준수할 것으로 가정함으로써(3-6) 발생하기도 한다. 고정함축은 대화격률과 같은 화용론의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정 어휘나 구문의 사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의미의 함축으로 어휘 의미에 의존하는 비진리조건적 추론을 말한다. 대화함축의 일반함축은 문맥에 의존적이지 않고, 대화의 격률을 준수 할 것을 가정하는 반면, 특정함축은 대화 격률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맥락에 의존하게 된다. 이처럼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화자에 의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의도된 함축의 의미는 청자에게 추론의 과정을 유발시킨다. 함축과 추론의 관계에서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함축에 따른 다양한 추론의 유형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⁴⁾

추론은 우선 발화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와 논의에 바탕을 두고 명제의 명시적 의미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나 명제에 사용된 특정 구문이나, 어법을 통한 의미해석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상호협력의 원칙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맥락에 의존하는 해야 하는

4) 이성범 (2001: 32)은 추론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경우도 있다.

(9) a. **Du bist** Professor!

b. **Sie sind** Professor!

(10) a. Inge ist verheiratet **und** sie ist schwanger.

b. Inge ist schwanger **und** sie ist verheiratet.

두 가지의 추론 모두 명제에 나타난 명시적인 내용이나 어휘의 사용 뿐 아니라 그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의 특정한 사회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언어사용의 예에서 두드러지는 비논리적 함축 즉, 비고정 함축에 의한 비논리적 추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3. 비논리적 함축에 의한 비논리적 추론

어떤 한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그 문장의 발화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닌, 길으로 드러나지 않고 발화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내용은 맥락에 의존하는 화용론적 추론을 통하여 이끌어 낼 수 있다. 즉, 논리학자들이 추구하는 논리적 대응관계에 바탕을 둔 진리조건적 추론과 달리 비진리조건적인 추론은 언어사용에서 맥락에 바탕을 둔 함축과 그에 대한 화용론적 추론을 말한다. 함축된 내용들은 문장의 발화에서 직접 언급된 것도 아니며, 발화된 문장의 진리치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발화에서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함축의 의미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발화의 맥락 안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는 대화함축이며, 이러한 대화함축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를 지배하게 되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대화함축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화자들이 Grice가 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화에서 지켜질 것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11) A: Petra ist eine Klatschtante.

B: Heute ist das Wetter wirklich schön.

즉 지켜질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적인 원리들이 위배되는 것은 그러한 위반을 감수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화자의 의도를 청자는 대화의 맥락 안에서 추론을 통하여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발화된 문장에 직접 나타난 의미내용에 대한 논리적 추론에 의한 의미파악 뿐만이 아니라, 발화에 내포되어 있는 비논리적 함축에 의한 비논리적 추론에 의한 것이 된다. 비언어적 추론에서도 언어가 아닌 지시물들이 하나의 맥락을 형성하여 유발되는 맥락 의존적 추론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부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복장으로부터 그 사람은 카톨릭 종교의 목회자이며,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의미를 추론해 내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회에서 행해지는 관습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지시물들로부터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비언어적 추론에 관하여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부합하지 않음으로 더 이상의 논의를 접어두고자 한다. 함축과 추론에서 대화원리의 위반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4. 함축과 추론에서 대화원리의 위반이 주는 의미와 격률들의 위계관계

사람들은 대화에서 왜 또는 어떻게 대화의 원리들을 위배하게 되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대화 목적과 방향에 맞도록 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이를 위하여 대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격률들을 준수하고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면, 인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은 이러한 원리와 격률들의 준수로 모두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화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몇몇 격률들을 위반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대화의 원리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고있

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쉽게 격률들이 어겨지는 대화의 예들을 찾아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격률의 위반이 의사소통의 방해적 요소로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대화자들이 격률을 어기는 경우에도 함축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합리적인 대화 참여자들에 의해 지켜질 것으로 간주되는 격률들이 어겨질 경우, 이것이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므로 추론을 유도하게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함축에 의도된 화자의 의미전달 내용을 추론하게 되므로 의사소통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Grice가 제시하고 있는 협동의 원리와 질, 양, 관계, 양태의 격률들은 과연 의사소통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갖게 되는 역할과 실제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Grice는 대화참여자들이 준수해야 할 원리로서 제시하고 있는 협동의 원리와 질, 양, 관계, 양태의 격률들에서 협동의 원리는 다른 격률들의 상위 원리로서 작용하며 질의 격률이 양의 격률이나 관계, 양태의 격률들 보다 우선하여 지켜져야 한다는 위계관계를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협동하고 있다는 원리가 우선 지켜져야 하며, 이러한 원리의 준수를 전제로 서로를 속이거나 거짓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목적이 아니라면 질의 격률을 어기는 경우는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협동의 원리 하에서 의사소통에 임하는 합리적인 대화자는 질의 격률을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여기에 언어 외적인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격률들 사이의 위계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화에 있어서 진실된 기여보다도 예절에 대한 기여를 우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어에서 “Es tut mir sehr Leid, aber ich muss Ihnen sagen, dass ...”와 같은 표현은 이러한 발화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

5) Harnish and Bach (1979), Matsumoto (1995) 참조.

으면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발화 내용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화는 때문에 거짓된 발화가 되므로 질의 격률을 어기고 있지만, 질의 격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Es tut mir sehr Leid” 부분을 발화하지 않는다면 대화에서의 최소한의 예절을 무시한 것이 되어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예절을 제일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유교적 전통을 지닌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위의 예에서 보듯이 서양의 문화권에서도 질의 격률을 위반하는 상투적인 문구의 사용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기능을 오히려 원활히 하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Leech (1983)는 따라서 질의 격률보다 예절성의 원리 Prinzip der Höflichkeit⁶⁾가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Leech (1983)는 그의 지적에서 예절성의 원리는 Grice가 제시하는 격률들과 같은 층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또 하나의 다른 원리로써가 아니라 그러한 격률들에 우선하여 지켜져야 할 원리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언어이론적 측면과 언어사용적 측면을 이원화하여 언어의 사용적 측면이 이론적 측면에 우선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⁷⁾

여기에서 Grice가 제시하는 원리들을 언어 이론적 층위의 것으로, Leech의 주장에 따른 예절성의 원리를 언어사용적 층위의 것으로 분리하여 볼 때 두 층위 간의 상충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 된다. 다시 말하면, 언어 이론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격률들과 언어외적 측면에서 격률들에 우선하여 요구되는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이 문제를 언어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라는 쟁점이 생긴다. 우선 5장에서는 언어사용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6) Braun & Levinson (1978)

7) Leech는 추론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구조와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적 화용론을 주장하는데, 그의 지적을 따르면, 예절의 원리는 우선조건이 된다. 이것은 언어의 사용을 그 언어가 통용되는 언어집단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언어사용 집단은 언어자체에 우선하며, 이 사회 안에 용해되어 있는 사회적 규범은 언어사용의 규범의 틀을 마련한다는 입장에 해당한다.

Grice의 언어 이론적 격률들이 위반되는 사례들에 함축된 의미와 그 추론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하며, 6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Grice 이론을 언어보편성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5. 언어사용적 측면에서 격률 위반에 따른 함축과 추론의 발생

5.1 광고언어

광고에서는 광고주나 광고제작자가 화자로서, 광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청자로서, 그리고 광고내용이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내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다고 본다.⁸⁾ 여기서 광고를 통한 의사소통 참여자들 사이에서 우선 적어도 Grice가 제안하는 협동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하위 격률들 중에는 그 어느 것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 많은 경우들을 접할 수 있다. 광고는 대체로 허위나 과장광고를 통하여 질과 양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광고의 특성상 광고의 목적을 위해 관계나 양태의 격률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많은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⁹⁾ 광고언어를 언어사용의 가장 특수한 한 형태로 간주하더라도,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격률들을 위반함으로써 얻게되는 함축된 의사소통의 효과와 그 궁극적인 전달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련성을 가지고 발화하라’는 관련성의 격률은 특히 오늘날에 행해지는 많은 광고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무엇을 위한 광고인지 인식하기조차 힘든 광고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것은 “관련성을 가지고 말하라”라는 요구보다, 광고의 일차적인 목적을 위한 “눈에 띄게 하라” Auffälligkeit¹⁰⁾ 효과를 위한, 일종의 광고 전략에 의한 것으로.¹¹⁾ 광고상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오히려 은폐시킴으로써 호

8) 최명원 (2000)

9)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이민행 (2000)을 참조.

10) 광고의 기본원칙을 Sowinski (1998)에서는 ‘눈에 띄는 것’ Auffälligkeit, ‘독창성’ Originalität와 ‘정보성’ Informativität로 정의하고 있다.

기심을 유발하여 광고에 일단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한 예로 최근에 특정기간 동안 “선영아 사랑해!”라는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광고는 그러나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누군가가 ‘선영’이라는 한 여자에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하고 있는 사랑의 고백정도로 간주하고 ‘누군지 참 행복하겠다’라는 막연한 부러움과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여기서 ‘선영아 사랑해!’는 한 정보통신 회사의 광고문안이었다는 것과 ‘선영’이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 관계에 있는 대상인물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현수막이 무엇을 위한 광고였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채로 이 광고현수막은 광고 상품과는 별도로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 이러한 광고전략에서는 Grice의 대화원리들에 우선하여 광고의 중요한 전략이 되는 “눈에 띄게 하라”가 더 우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격률의 위반에 내재되어 있는 함축은 오히려 의미의 전달과는 무관한 것으로, 우리가 청자로서 추론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그 광고문구의 의미 파악이 아닌, 그러한 효과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이다.

광고언어의 또 다른 특성의 하나는 명확하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애매하고 모호하게 말하는 경향에 있다. 광고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그 의미전달에 있어서 구체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는 것인데¹¹⁾ 이는 명백히 Grice가 제시하고 있는 양태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광고언어의 사용은 광고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는 있으나, 어느 정도 허위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는 것이 ‘이것은 광고이다’라는 틀 안에서 용인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광고전략에 따라 사용되는 광고언어는 광고의 목적을 위해 Grice가 제시하는 언어이론적 측면의 격률들에 대한 준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며, 이때 나타나는 격률의 위반은 화자의 발화의미에 대한 추론에 목적을

11) 광고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AIDA-원칙은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의 머리글자에서 유래한다. 최명원 (2000b: 214 참조)

12) Baumgart (1992: 203), 최명원 (2000a) 참조.

둔 것이 아닌 것으로 이는 함축된 의미에 대한 언어 이론적 측면보다는 사용 목적에 따른 언어 사용적 측면을 우위에 두고 있음을 말한다.

5.2 성전형성에 따른 여성언어와 남성언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성에 따른 언어적 차이가 어떠한 결과로써 나타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성전형성에 따른 언어사용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³⁾ 이 장에서는 그러나 성 전형성에 따른 여성 또는 남성언어에 관한 논의를 위에서 언급한 많은 여성언어 학자들과 같이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다루고자 함이 아니라, 언어사용에서 화용론적 추론이 가능한 성전형적인 격률 위반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의 언어가 사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언어라는 점일 수 있다는 것¹⁴⁾과,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여성언어사용에 따른 성 전형적 격률 위반이 나타난다면, 이를 통해 함축된 의미와 그 추론 과정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가의 문제와 이러한 것들이 언어보편성의 원리와 부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양의 격률은 '말하는 사람은 충분히 제보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성립하기 위하여 화자는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과 화자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즉, 담화에 꼭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청자가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언어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대화에서 남성들에 비해 대화의 진행에서 주제를 이끌어 가는 역할보다는 성공적인 대화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협동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¹⁵⁾ 한편 또 다른 한

13) Lakoff (1975, 1992), Fishman (1978, 1984), Frank(1992), Schmidt(1988), Gräßel (1991), West/Zimmerman(1977, 1983), Zimmermann/West (1975), Werner (1983), Trömel-Plötz (1984), Günthner/Kotthoff(1992) 등등.

14)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사회화 과정과 함께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15) Key (1975), Fishman (1978), Werner (1981)

특징으로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 문구나 어휘 등이 있으며, 여성들은 발화에서 단언적 주장의 형식보다는 부가의문문의 형식을 선호한다는 결과도 있다.¹⁶⁾ 부가의문문의 형식은 단언적 발화보다 명확하거나 간결한 발화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은 여성들의 대화태도가 남성들과는 달리 자신이 없는, 상대방의 인정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혹은 자신의 발화에 대하여 그다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회피적인 태도의 일환으로¹⁷⁾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상대방을 고려하는 태도나 의사소통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취해진다고 설명한다.¹⁸⁾ 대화의 유형에서도 성전형성에 기인하는 특정한 대화양식 *Gesprächsstil*이 있다고 본다.¹⁹⁾ 또한 여성들은 그들의 대화에서 주로 자주 사용하는 특정 문구나 어휘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남성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어머나!”와 같은 표현은 전형적인 여성 언어로 간주되며, 남성들이 이러한 어휘를 사용할 경우 매우 이상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어휘에는 한마디로 ‘여성스러움’이 함축되어 있다. 때문에 남성들이 이러한 어휘를 사용하게 되면, 남자답지 않은, 여성스러운 남성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러한 어휘의 사용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수다스럽고 (필요 이상의 말을 많이 하고), 그 내용은 전혀 정보성을 가지지 못하거나 필요이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질 때가 많다는 지적 또한 하고 있다. 여성들은 언어사용에서 양의 격률과 양태의 격률을 자주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화는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나 감정의 전달이라기보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하여 또는 말하는 행위를 통한 자아구현으로) “말하는 행위”를 즐기는 태도로 간주되기도 한다.²⁰⁾

남성들의 언어사용에는 여성들에 비하여 아이러니나 과장법이 더 자주 사용된다. 아이러니나 과장법은 모두 격률들 가운데 상위 격률인 질의 격

16) Fishman (1978, 1984), Gräbel (1991)

17) Lakoff (1975)

18) Fishman (1984), Schmidt (1988), Trömel-Plötz (1982)

19) Goffman (1980), Trömel-Plötz (1984), Werner (1983), Schmidt (1988), Gräbel (1991) 등.

20) 이러한 견해에는 여성 비하적 편견이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다.

를을 위반하는 경우들이다. 또한 남성들은 종종 말이 많다고 비춰지는 경우에 “남자답지 못하다”, “남자가 너무 말이 많아”라는 표현을 통하여, 남성들의 성전형적 발화태도를 강요받는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제보적으로 하라는 양의 격률 위반에 대한 준수 경고나 간결하게 하라는 양태의 격률의 준수에 대한 요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러한 견해들은 여성이나 남성들이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통념, 즉 “여성들은 쓸데없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라던가 “남자가 말이 너무 많으면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일반화된 시각을 남성과 여성의 언어사용 자체에 양의 격률과 양태의 격률(의 위반)에 대한 대화자의 태도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으로 본다. 여성의 발화태도를 조리 없고, 명확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입장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여성이라는 대화자를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²¹⁾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마다가스카라의 말라가시어 Malagasy language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대화에서 발화되는 양이 매우 적다. 이때 여성들은 많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는 여성이 아무리 많이 말을 많이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나 지위로 볼 때, 그들의 발화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와 그것이 중요한 것일지라도 여성들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 않음으로 말하는 것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발화를 하더라도 용인된다고 한다²²⁾. 이처럼 성 전형성에 따른 언어사용의 예들은 전혀 언어외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언어사용적 측면이 언어이론적 측면에 우선하는 것을 보여준다.

21) 미국에서 행해진 한 연구는 대학에서 똑 같은 논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했을 때 논문의 필자를 여성의 이름으로 한 경우 논문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논문의 필자를 남성의 이름으로 했을 경우 수준 높은 논문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보고를 내놓고 있다.

22) Keenan 1976: 77쪽 이하.

5.3 사회적 지위의 위계관계에서 오는 언어사용에 따른 격률의 위반과 함축

사회적 지위의 위계관계에서 오는 언어사용에 따른 격률의 위반과 함축은 어린이와 성인의 대화나²³⁾ 직업이나 신분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대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들이 흔히 듣는 “어린것이 어디서 말대꾸야!”와 같은 어른들의 발화는 의사소통에 우선하는 어른들의 권위, 즉 사회적 집단체제의 유지는 연장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에서 비롯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하여 연장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극단적인 예로 이와 유사한 경우는 군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명령체계에서처럼 상호 교환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수한 형태를 띄게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합리적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의사소통의 기능에 우선하며, 이와 같은 대화의 진행에서 우리는 상호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신분관계나 지위, 사회문화적 맥락들이 어떻게 함축되어 있는지 추론해 낼 수 있다.²⁴⁾ 여성언어 연구자들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서 그들의 지위관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환자는 거의 대부분의 발화에서 의사에 의해 그들의 발화가 중지되거나 무시된다. 이때 단지 의사와 환자라는 지위관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의 역할까지 고려되면, 즉 여자의사와 남자환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의사와 환자의 지위관계에 앞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구분이 우선하여 대화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인다고 한다.²⁵⁾ 이와 같이 사회적 지위가 의사소통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서로 다른 신분관계에서 야기되는 대화의 굴절 양상에 대하여 많은 함축된 의미를 추론해 낼 수 있음을 말하며, 여기서도 사회적 지위에 의한 언어사용이 언어이론적 격률들에 우선하여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서 Grice

23) West /Zimmermann (1977)

24) Zimmerman/West (1975), West/Zimmerman (1983), Frank (1992), Henne/ Rehbock (1979).

25) West (1984)

의 대화원리에 있어서 언어보편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5.4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한 언어사용에 따른 격률의 위반과 함축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구나 그 상대가 성인 여성인 경우 한국어에서는 일상화 되어 있지 않다. ‘아무개의 엄마’, ‘아무개의 이모’ 등이라는 표현처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지칭형식의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표현의 사용은 영어 사용자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Grice에서 말하는 양태의 격률이나 양의 격률 등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²⁶⁾ 이것은 한국에서 성인 여성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적 규범이 되는 것으로, 이처럼 한 사회가 갖는 규범이 언어의 사용에 제약을 주는 많은 경우들에서 우리는 사회의 규범이 대화 격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Keenan (1976)의 말라가시어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에서는 양의 격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내고 있다. 친족사회를 이루고 사는 말라가시 사회에서는 많은 정보가 이미 사회적 맥락 안에 공유되어 있다. 때문에 말라가시 사회에서는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가치 있는 정보이며, 이미 알려진 사실로 간주되는 정보는 발화하지 않음으로, 다른 문화권의 시각으로 말라가시어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정보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말라가시 사회에서의 언어사용은 Grice의 격률을 일반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라가시 사람들에게는 이미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 용해 되어

26) 말라가시어 Malagasy language에서는 대화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라는 예절의 규칙이 요구되므로, 일인칭 대명사를 통하여 자기자신을 나타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Fasold (1990)는 실제로 A라는 이름의 10대 소년 “제 어머니가 아프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누이동생인 B의 이름을 빌어 “B의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말하는 경우의 예를 들고 있다. 영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Grice의 격률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언어사용의 예는 말라가시어의 문화에서는 Grice의 격률들 보다 ‘대화에서 (일인칭 대명사의 사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규범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있는 내용으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보아온 경우들에서처럼 언어사용의 측면에서 Grice가 제안하는 대화의 원리들이 준수될 수 없는 경우에 Leech의 견해처럼 언어의 이론적 층위와 사용적 층위를 구분하여 다룰 것인지, 이를 하나의 통합된 층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6. Grice의 원리는 보편원리로 적용될 수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Grice가 제시하고 있는 원리들은 언어사용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원리들이 준수되지 않는 많은 경우들을 통하여 그의 이론의 보편성에 의문을 던지게 된다. 언어이론적 측면과 사용적 측면의 이원화에서 보이는 상충점을 하나의 통합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Sperber & Wilson의 적합성 이론²⁷⁾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 역시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적용되는 대화의 원리를 모두 설명해 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자 한다.²⁸⁾ 다만 본 논문에서는 Grice의 대화원리를 보편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Grice가 제시하고 있는 격률체계의 보편성에 대한 의문의 제기는 서로 다른 문화라던가, 또는 같은 문화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격률들 사이의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나, Grice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언어사용적 측면에서 대화의 원리에 앞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절성의 원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로부터 비롯

27) Sperber & Wilson (1986)은 Grice가 제시한 모든 격률이 적합성 (relevance)라는 하나의 원리 하에 통합될 수 있고, 인지적 관점에서 추론을 다루고 있는 적합성의 원리만으로도 모든 대화함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perber & Wilson의 적합성이론 설명의 이면에는 원리와 매개변항의 이중적 구조의 설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관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언어이론적 측면과 언어사용을 한 층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게 된다.

28) 적합성 이론과 관련하여 Matsumoto (1995), Carson (1998), Levinson (1989)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된다. 예를 들어 ‘예절성의 원칙’을 우선 준수해야 하는 사회 규범의 요구에 맞추어 질의 격률을 위반하는 A라는 문화와 이러한 예절성의 원칙이 B라는 문화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두 가지 문화권에서 요구되는 상충되는 언어사용의 원리들을 어떻게 보편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말라가시어의 사용을 예로 Grice가 제시하는 원리들에 대하여 언어보편성이 적용될 수 있는 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함축과 추론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비교 할 때, 발화를 통해 드러나는 양과 추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의미의 질적 양적인 함이 결국 같다면, 즉, A라는 문화권은 실제 발화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적으나, 그 문화 안에 공유된 사회 문화적으로 함축된 정보가 맥락 안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B라는 문화권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보다 실제 발화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많지만, 암시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적을 경우, 그러나 이 두 문화권에서 발화를 통해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절대적 양이 결국 같다고 가정한다면, Grice의 원리를 보편원리로, 각각의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매개변항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Grice가 제시하는 대화원리와 격률들은 대화에서 일반적인 원리로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 간주하고, 각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의한, 혹은 특정 상황에서 부여되는 대화에 적용되는 조건들에 의한 원리와 격률의 위반이 함축과 추론을 통하여 이러한 원리들의 매개변항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이는 이론적 측면과 사용적 측면의 상충점도 이로써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Grice의 대화협동 원리를 보편적 원리로 간주한다면, 격률들은 이 원리를 이루는 하위 모듈이 되며, 각 각의 사회가 가지는 언어사용의 규범은 이러한 원리들의 매개변항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Grice가 제시하는 대화의 원리들과 언어사용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대화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화의 내용을 지배하는 격률도 중요하지만, 한 언어를 공유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기인하는 대화의 우선하는 조건들, 즉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인간적 관계에 따른 대화의 형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함축과 추론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히 들어 난다. 즉 추론 과정을 통해서 화자의 원래 의도했던 바와 청자가 추론해 낸 것이 (상호 협동하는 것을 가정하면서도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다를 수 있다면, 이때의 함축과 추론의 과정이 정보의 전달에서 관습화되지 않은 기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특히, 한 A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와 B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에서 두 가지의 문화가 아주 다른 양상으로 각각의 언어에 반영되는 경우, 예를 들어 A라는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B라는 언어의 사용에서 A라는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보다 충분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예, 말라가시어, 한국어의 주어생략현상 등) A라는 언어는 B라는 언어사용에 대하여 Grice의 대화 협동이론에서 제시하는 어떤 격률이 어겨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며 Grice의 원리를 언어보편적 원리로 적용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B라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발화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정보적 특성들이 사회적 맥락 뿐 아니라 그 언어를 공유하는 언어공동체의 문화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구조 안에서 충분히 발견 가능한 것으로 용해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발견 가능한 것으로 추론해 낼 수 있다. 비록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만 아주 적은 정보가 전달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 발화의 맥락 안에서 많은 양의 (잉여적)정보가 추론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때 청자에 의하여 화자의 의도와 다른 전언이 추론될 수 있는 위험이 화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다면, 그리고 그 위험이 바로 의사소통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화자는 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발화에 있어서 같은 문화나 발화의 맥락 안에 어느 정도 인식 가능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어서 추론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그 언어가 문장 의존적 언어 Satz-orientierte Sprache이건 담화 의존적 언어Diskurs-orientierte Sprache이건 간에 어떤 성분이 문장의 발화에서 생략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생략된 부분을 청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 복구해 낼 수 있는 경우이다. 이태리어에서의 pro-drop 현상은 강한 일

치 Agreement 자질을 통하여 복구 가능하며, 한국어나 일본어의 pro-drop 은 맥락 안에서 충분히 복구될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즉 아무런 맥락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주어 탈락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어에서도 법정언어나 군대에서의 언어사용에서처럼 이러한 생략이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또는 과실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략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말라가 시어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일인칭 대명사를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예절의 원칙’을 우선한 사회규범의 요구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문화권의 눈으로 볼 때는 불필요한 수고를 들이는 대화의 방식을 택하는 것 (Grice의 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와 관습 안에서 요구하는 예절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잉여적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정보가 이미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 용해되어 있고 따라서,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의 발화태도는 그 문화권 안에서는 대화원리에 우선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Grice의 대화원리보다 우선하여 지켜야 하는 예절성의 원리가 언어사용에 규범을 마련해주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찾아질 수 있다면, 이는 언어보편원리로서 대화원리에 대한 그 사회가 가지는 매개변항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언어이론적 측면의 화용론을 언어보편원리로 가정한다면, 사회학적 화용론은 이에 대한 매개변항으로 각 언어집단에 따른 고유한 문화와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사용과 이러한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인간의 언어사용에 대한 보편적 원리는 언어이론적 측면의 화용론과 언어사용적 측면의 화용론을 원리와 매개변항으로 설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7. 맺음말

Grice는 사람들의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대화에 적용되는 대화논리의 설정을 통하여 대화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원리와 격률들을 보편적인 원리로

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사용의 예에서 각각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른, Grice가 제시하지 않는 다른 원리들이 대화원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사용의 예들은 다른 문화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문화에서도 언어사용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른 맥락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Grice가 제시하는 대화원리가 언어보편적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언어의 사용과 그들의 사회 문화적 현상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인 언어민족학에서는 한 언어공동체를 중심으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언어가 어떻게 조직되고 개념화되며, 이러한 언어가 그들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와 생활양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나 원리를 중심과제로 다룬다.

이성범(2001: 392 이하)은 인간의 언어는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는 달리, 교육에 의해 전수되는 문화적 유산의 하나로서, 언어 자체는 그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 창조의 수단이며,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언어의 말소리와 단어, 문장 형성 규칙 등만을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문화를 체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주위 사람들의 경험과 삶에 대한 지식, 사회와 자연을 인식하는 방식 등이 녹아 있는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으로 언어를 언어적 지식으로만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민족마다 또는 언어공동체마다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언어자원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해져 있고, 이는 그 집단의 생활방식을 지배하는 공통적인 관념이나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또한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민족학에서 얻어지는 언어사용의 개별성에 관한 연구와 언어이론적 화용론의 접목을 통하여 개별성으로부터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려는 노력과 다시 이러한 원리로부터 개별적 언어 현상이 구현되어 나가는 매개변수적 과정을 연구함으로써²⁹⁾ 언어이론적 측면과 사용적 측면의 상충점을 하나의 보편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할 수 있다면,

29) 이성범 (2001: 398)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Grice의 대화원리를 보편원리로, 각 언어의 사용에 나타나는 개별적 현상들을 매개변항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Literaturverzeichnis

- Baumgart, M. (1992) Die Sprache der Anzeigenwerbung. Eine linguistische Analyse aktueller Werbeslogans. Heidelberg, Phisica-Verlag.
- Braun, P. & S. Levinson. (1978)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Goody (ed.) Questions and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6 - 311.
- Carston, R. (1998) Informativeness, relevance and scalar implicature. In R. Carston, R. & S. Uchida, (eds.) Relevance Theory: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John Benjamins, Amsterdam.
- Fasold, R. W. (1990)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Basil Blackwell, Oxford.
- Fishman, P. (1978) Interaction: The Work Women Do. Social Problems, 24, 397-406.
- Fishman, P. (1984) Macht und Ohnmacht in Paargesprächen. In S. Trömel-Plötz, (Hrsg.) Gewalt durch Sprache. Die Vergewaltigung von Frauen in Gesprächen. Frankfurt a. M. 143-162.
- Goffman, E. (1980) Rahmen-Analyse. Frankfurt a. M.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41-58
- Gräbel, U. (1991) Sprachverhalten und Geschlecht. Eine empirische Studien zu geschlechtsspezifischem Sprachverhalten in Fernsehdiskussionen. Paffenweiler.
- Günthner, S. & H. Kotthoff. (1992) Die Geschlechter im Gespräch: Kommunikation in Institutionen. Stuttgart.
- Harnish, R. M. & K. Bach (1979)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Speech Acts. MIT Press, Cambridge.
- Henne, H. & H. Rehbock. (1979) Einführung in die Gesprächsanalyse. Berlin, New York.

- Keenan, E. O. (1976) The universality of conversational postulates. *Language in Society*, 5, 67-80
- Key, M. R. (1975) *Male/ Female Language*, Metuchen, N. J.
- Lakoff, R. (1992) Präsenz und Einfluß von Frauen in Institutionen. Kommunikative Strategien und Stile vor Gericht und in der Therapiesituationen. In S. Günthner/H. Kotthoff (Hrsg.). *Die Geschlechter im Gespräch: Kommunikation in Institutionen*. Stuttgart. 229-249.
- Lakoff, R. & R. Scherr. (1975) *Language and Women's Place*. Harper & Row. New York.
- Lakoff, G. (1995) Conversation. In G. Huck & J. Goldsmith, (eds.) *Ideology and Linguistic Theory* : 107-119. Routledge, London
- Leech, G.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gman, London.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Levinson, S. C. (1989) A review of relevance. *Journal of Linguistics* 25: 455-472.
- Matsumoto, Y. (1995) The conversational condition on Horn scal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5: 509-559.
- Samel, I. (1995) *Einführung in die feministische Sprachwissenschaft*. Berlin.
- Schmidt, C. (1988) „Typisch weiblich - typisch männlich“. *Geschlechtstypisches Kommunikationsverhalten in studentischen Kleingruppen*. Tübingen.
- Sowinski, B. (1998) *Werbung*. Tübingen, Niemeyer.
- Sperber, D. & D.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Blackwell, Oxford.
- Thorne, B. & N. Henley. (1975) *Language and Sex. Difference and Dominance*. Rowley, Mass.
- Thorne, B. & C. Kramarae /N. M.Henley. (Hrsg.) *Language, Gender and Society*. Rowley, Mass.
- Trömel-Plötz, S. (1982) *Frauensprache - Sprache der Veränderung*. Frankfurt a. M.
- Trömel-Plötz, S. (1984) (Hrsg.) *Gewalt durch Sprache. Die Vergewaltigung von Frauen in Gesprächen*. Frankfurt a. M.

- Werner, F. (1981) Gesprächsarbeit von Frauen und Männern. Frankfurt a. M. / Bern.
- West, C. & D. H. Zimmerman (1977) Women's Place in Everyday Talk: Reflections on Parent-Child Interaction. *Social Problems* 24, 521-529.
- West, C. & D. H. Zimmerman (1983) Small Insults: A Study of Interruptions in Cross-Sex Conversations between Unacquainted Persons. In B. Thorne, C. Kramarae, N. & M. Henley. (Hrsg.) *Language, Gender and Society*. Rowley, Mass. 7-21.
- Zimmerman, D. H. & C. West. (1975) Sex roles, Interruptions and Silences in Conversation. In B. Thorne & N. Henley. *Language and Sex. Difference and Dominance*. Rowley, Mass. 105-129.

이성범 (2001) 추론의 화용론. 한신문화사, 서울.

이민행 (2000) 광고카피와 대화함축. *독일언어문학*. 제 13집. 독일언어문학 연구회. 53-68

최명원 (2000a) 광고와 광고언어: 광고에 반영된 시대정신의 언어적 표현에 대한 분석. *언어와 정보 사회*. 창간호. 서강대학교 언어정보 연구소. 191-212.

최명원 (2000b) 의사소통 모델에 따른 광고분석의 문제점. *독어학*. 제 2집. 한국독어학회. 207-228.

Zusammenfassung

Implikaturen und Inferenzen aus sprachtheoretischer und aus sprachpraktischer Perspektive betrachtet

Choi, Myung-Won(Ewha Univ./Sogang Univ.)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in erster Linie um die Frage, ob das Kooperationsprinzip und die Konversationsmaximen von Grice als universale Prinzipien angenommen werden können. Diese Fragestellung erwächst aus der Beobachtung, daß Grices Prinzipien in manchen Fällen des Sprachgebrauches nicht als universal geltend erscheinen. Solche Fälle finden sich vor allem in der

Werbesprache, beim geschlechtsunterschiedlich betrachteten Sprachgebrauch und im Bereich der sozio-kulturell bedingten Kontexte des Sprachgebrauchs. In derartigen Fällen haben nämlich die konkreten Zwecke des Sprachgebrauches Priorität vor sprachtheoretischen Prinzipien.

Die Überlegungen der vorliegenden Abhandlung zeigen nun, dass wir es dabei im Einzelfall zwar mit sehr unterschiedlichen und fallspezifischen Spracherscheinungen zu tun haben, dass diese sich aber mit Hilfe von ethnolinguistischen Untersuchungen schließlich dennoch als Parameter unter universalen Prinzipien erklären lassen.